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	 금융감독원
보고		배포 후 즉시		배포	2018.11.29.(목)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	담 당 자	성 미 라 사무관 (02-2100-2992)	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김 동 궁(02-3145-7550)			류 영 호 팀장 (02-3145-7552)	

## 제 목 : 「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(11.26)」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

-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시 산정된 인하여력은 지난 3년간 카드사의  
수수료 관련 원가 하락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며,
  -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 아님
- 다만, 카드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매년 마케팅비용이 증가하여  
수년간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,
  - \* 카드사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 ('14)20.0% ('15)22.3% ('16)24.2% ('17)25.8%
  -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카드사간 과당경쟁 심화로 카드사의  
자율적 감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, 카드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 
금번 개편시 금융당국과 업계가 마케팅 관행 개선을 함께 추진 예정
- 조만간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업계  
및 관련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 
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
-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「카드산업  
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」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나,
  - 금번 마케팅 관련 관행개선은 일반 소비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 
모든 혜택(포인트, 할인서비스 등)을 감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며,

- 기본적으로 수수료 수익에 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기인한 불요불급한 일회성 마케팅 비용 (프로모션 등) 지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
- '18.11.28 금융위원장의 국회 정무위 발언 역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주로 법인회원이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며,
  - 그간 카드사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
- 향후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련 감축기준을 마련할 것이며,
  -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카드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